

# 제주의 돌담, 그 무생유형의 넉넉함 속에 깃든 조형미

한림 화 (작가)

## 제주섬과 돌

애시당초 돌로 이뤄진 섬이 제주도인 셈이다. 이 지구상에 숱한 화산섬이 널려있고 거기는 어김없이 돌이 널려있다. 그러나 제주도처럼 돌의 쓰임새가 다양한 곳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돌이 꼭 제주도에서만 일상생활에 쓰인 건 아니었다 해도 유용하면서도 적절한 용도를 찾아 이용되었던 다양한 양상을 보면 제주도 사람이 돌을 대하는 안목이 대단하였음을 실감한다.

공간을 구성하고 구획을 확정짓는 온갖 담에서부터 곡식을 갈무리하는 연자마며 맷돌이며 돌확 등등 연장에다 솔이며 등축이며 화로며 일상용구에 이르기까지 그 쓰임새는 무궁무진하였다.

지금은 대체 물건이 쏟아져 나오면서 일상용구는 구경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제주도가 돌 많은 섬이란 걸 실감나게 하는 게 있다. 그게 저기 바닷가에서부터 중산간을 에우고도 모자라 현대화된 도시에까지 파고든 돌담에 서이다.

## 돌담들

제주돌담은 척 보면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쌓았는지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을 정도이다.

본디 우리나라 담쌓기의 전통적인 방식은 몇 가지로 대별된다. 예컨대 성곽이나 집벽 그러니까 축을 쌓을 때 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네모지게 돌을 다



듬어 쌓는 **머름돌쌓기**와 **다듬돌쌓기** 등이 있다. 이 두 종류의 담쌓기는 어떻게 돌을 ‘담았느냐’에 따라 다시 **편축쌓기**와 **협축쌓기**로 구별짓는다.

**견치석쌓기** 요즘 조경용으로 어느 곳이나 사용되고 있는 **견치석(犬齒石)쌓기**는 우리 방식이 아닌 일본식이다. **경칩돌쌓음**이니 **견칩쌓음**이니 하는 건 다 견치석쌓기를 두고 변형된 이름들일 뿐이다. 또한 **깎돌쌓기**라든지 **메쌓기**, **찰쌓기**도 마찬가지로 견치석쌓기의 방식에 따라 붙여진 다른 이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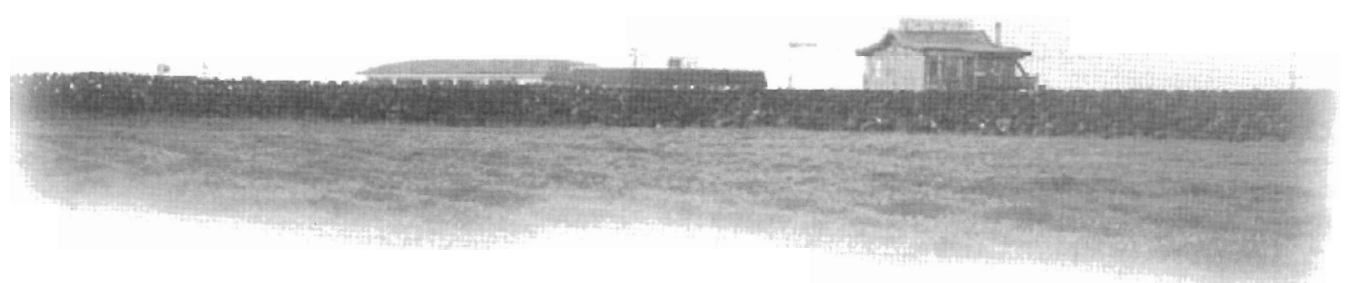
이 방식의 담쌓기는 깎돌을 네모지게 다듬어 개의 이빨처럼 마름모꼴로 서로 어긋나게 쌓으면서 돌과 돌을 점토며 시멘트를 넣어 고정시킨다. 돌 사이의 빈틈을 빼곡하게 메워나가면서 쌓기 때문에 물길을 열어줄 수 없는 단점이 두드러지므로 어쩔 수 없이 파이프 등을 심어 물이 빠지게 하지 않으면 길으로 보이는 견고성과는 달리 쉽게 허물어지고 만다.

**마름돌쌓기/다듬돌쌓기** 반면에 우리담쌓기는 마름돌쌓기든 다듬돌쌓기든 편축을 쌓을 때나 협축을 쌓을 때도 돌 이외의 다른 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жат질’ 이라고도 하는 **성담쌓기**만 해도 그렇다. 돌메로 아귀가 맞게 편을 내고 모서리를 궁글리면서 쌓아 놓으면 돌들이 알아서 서로 엉겨붙고 적당히 간격을 둔다. 덕분에 물을 걸러내는 장치를 하지 않아도 단단하기가 이를 데 없다.



성곽을 쌓는 ‘성담’과 무덤을 에워두르는 ‘산담’은 담 위로 사람이 걸어다닐 만한 길을 내는 게 특색이랄 수 있다. 때문에 담에 적당한 나비를 주어야 쌓아야 한다. 성담은 보통 사람들이 엇마주칠 만한 나비를 두고 산담은 한사람이 조봇이 걸을 수 있으면 충분하다. 그런 나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깥쪽과 안쪽으로 두 줄이나 도록 빼곡하게 쌓아 가운데 골을 놓고서 거기를 돌맹이로 채워넣는다.



**축쌓기** 성담을 쌓는 방식으로 축을 쌓아 집을 지을 때는 겹으로 쌓지 않고 외줄로 쌓는다. 또한 집축을 쌓을 때도 웬만해서는 돌 말고는 다른 재료를 섞지 않지만 안쪽으로는 보온과 보습 등을 고려하여 돌로 쌓은 축에다 다시 흙벽을 쳤다. 제주도에서는 회가 다량으로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와집이나 초가를 막론하고 거의 다 흙을 발랐다.

성곽을 조성할 때나 집을 지을 때는 주로 다듬은 네모진 돌을 썼다면 집주위를 에우는 울담을 두를 때나 밭의 담을 쌓을 때는 돌을 생긴 그대로 그냥 사용하였다.

**밭담쌓기** 밭의 경계를 이루면서 동시에 지어놓은 농사를 마소가 함부로 넘나들어 파작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모진바람결을 누그러뜨리도록 하는 게 밭담이다. 울담도 역시 같은 구실을 하였다. 따라서 견고성이 유지되면서도 탄력이 있도록 쌓되 바람이 지나가는 통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흙이 휩쓸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완충장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쌓아야만 하였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우선 허물어지지 않으면서 바람과 물이 들고 나는데 별 지장이 없도록 외줄쌓기를 하였다.

그렇다고 바닷가와 중산간지대의 밭과 울의 담을 칠 때 다 똑같이 쌓지 않았다. 지형지세와 자연현상을 심분고려하였다. 중산간지대는 **비계담**이라고 하여 밑둥에는 마치 성담을 닮듯이 조금 넓게 폭을 잡아 잔돌맹이로 빼곡하니 빈틈없이 쌓아올리다가 위로 올라올수록 큰돌맹이를 써서 성글게 숭숭 구멍을 내었다. 아마도 중산간의 지형지세가 바닷가보다는 다소 가파르게 경사가 저서 흙이 휩쓸려나가는 양이 심한 것을 보완하려는 목적에서 인 듯 싶다. 그런가하면 외줄로 담을 쌓아도 바닷가나 평지에서는 밑둥에 굵은 돌맹이를 놓다가 위로 올라가면 작은 것들을 썼다.

이런 돌담을 보노라면 저절로 감탄이 이는 것이, 제주 사람이 다 예전에는 빼어난 석공(石工), ‘돌챙이’ 였나 싶다. 이들이 쌓아놓은 담은 이제도 이쪽 끝에서 흔들면 저쪽 끝까지 고루 진동이 파동쳐 닿는다. 그러나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갈대가 바람에 부러지지 않는 원리와 다름없는 공법을 외줄담쌓기에 적용한 것은 비바람 사나운 제주섬에 꼭 필요한 것이었다.

밭담쌓기





**어긋담** 그런가 하면 여염집 어긋담은 정말로 성글고 큰 돌들을 썼다. 저절로 다른 담에 비해 구멍은 훨씬 크게 마련이다. 또한 어긋담길은 한일(一)자로 조성하기보다는 한번 꼬부라진 새을(乙)자꼴을 택한 경우가 많다. 이에도 깊은 뜻이 배어있는데, 구멍을 크게 낸 건 거칠고 악바른 크고 작은 바람이 한숨 녹게 하는 바람길인 동시에 그 집안의 동태를 간접적으로 살펴 알 수 있는 장치인 셈이며, 꼬부라지게 집어긋길을 낸 것은 조금하게 집 안팎을 들고나지 않고 여

유를 채길 시간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며 또 타인에게 사적인 공간을 노골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너나의 영역을 구분짓지 않는 너그러움의 소산이랄 수 있다. 정주석만 해도 사실은 집울담의 연장이다. 집울을 두르고 또 대문을 두어 사적영역인 집을 타인으로부터 철저히 차단하는 가옥구조가 아니라 열린공간을 설정한 제주의 집에서일 망정 확인한 구역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슬쩍 정주석을 두고 거기에 나무막대를 걸침으로써 사적영역의 경계가 매우 확실해지는 효과를 노렸다고나 할까.

이 밖에도 바다에 돌담을 둘러 어로행위를 하였는데, 고기를 간만의 조수차를 이용하여 포획하는 방법이었다. 동그랗게 쌓아올린 것을 원이라 하고 기다랗게 쌓아 일정구역을 차단한 것을 줄이라고 하였다.

제주의 돌담에는 무생물로 이뤄놓은 그지없이 넉넉한 유형의 정감어린 표정이 깃들어 있다. 이게 바로 제주사람이 돌에서 찾은 미학, 조형미의 극치가 아닐까싶다. 